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NO EXIT

가제 : 출구는 없다

저자 : Taylor Adams

출판사: Joffe Books

발행일: 2017년 6월 28일

분량 : 285 페이지

장르 : 스릴러소설



★ 20th Century Fox 헐리우드 영화 제작 확정

★ 23개국에 판권 계약 / 영국에서 2017. 6월 출간 이후 113,000부 판매 / 미국 판매 순위 5위

★ 뜻밖의 결탁과 협상, 놀라운 반전!

출간 후 큰 화제를 모으며 영화 제작이 확정된 이 소설은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된다. 주인공은 급한 연락을 받고 장거리 운전을 시작하고, 그만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꼼짝없이 낚선 곳에 발이 묶이게 된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휴게소에서, 주인공은 납치된 어린아이를 발견한다. 고속도로 옆 외딴 휴게소라, 휴대전화 신호는 잡히지도 않고 공중전화도 없는데다 차로든 걸어서든 휴게소 밖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다. 함께 갇힌 사람들 중 아이를 납치한 범인이 있다면?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채 1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 숨막히는 싸움이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빠른 속도로 전개된다.

대학교 2학년생인 다비는 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 소스라치게 놀라 무작정 운전대를 잡았다. 엄마가 체장암 말기이고, 바로 내일 수술을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그것도 몇 줄 안 되는 문자로 알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아버지가 세 모녀를 떠나고 다비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말썽만 보란 듯이 저지르면서 오로지 집을 떠날 날만 기다렸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러 떠나는 그 날도 엄마에게 인사 한 마디 없이 집을 나섰다. 언니의 짧은 설명을 곰씹어보면, 엄마는 이미 다비가 악을 쓰며 대들던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부터 병들어 있었다. 수술을 받고 엄마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다시는 살아 있는 엄마를 못 본다는 의미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반쯤 나가버린 다비는 정신 없이 차를 몰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굶었다는 사실도, 휴대전화 충전기를 안 챙겨 왔다는 사실도 한참 달리던 중에 떠

올랐을 정도다. 하지만 날씨가 문제였다. 찌푸린 하늘에서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스노우 체인도 없는 다비의 낡은 차가 도저히 더 나갈 수 없을 만큼 도로에 눈이 켜켜이 쌓이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와이퍼까지 쏟아 붓는 눈에 똑 부러지자, 다비는 이러다 도로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그 때, 기적처럼 휴게소가 나타났다. 몇 시간을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빈 속으로 납다 달리기만 했던 다비는 일단 잠깐이라도 쉬기로 하고, 휴게소로 들어선다.

여행객을 위한 아담한 공간에는 폭설을 피해 들어온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배터리가 다 되기 전에 엄마와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아 휴게소 밖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다비는 주차장에 줄지어 선 차량들 사이를 통과하다가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다비의 새파란 차 바로 옆에 서 있는 회색 밴 유리창 너머로 뭔가 조그맣고 하얀 물체가 미세하지만 분명히 움직이는 것이 다비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잠시 멈춰 살펴보니, 아주 작은 손이었다. ‘인형인가?’ 생각하던 그 때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다비는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어떻게 됐나, 혼잣말을 하면서 다시 휴게소로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에 다시 돌아가 더 자세히 살펴본 다비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다. 돼지우리처럼 더럽고 지저분한 밴 뒤에, 개를 가둬놓는 우리 속에 어린 여자아이가 갇혀 있었다! 피를 흘리며 떨고 있는 그 아이는 몸을 크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와달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다비를 쳐다보았다.

휴게소 건물 안에는 다비보다 두세 살 많아 보이는 매력적인 청년 애슐리와, 중년 부부 에드와 제이가 있었다. 애슐리는 벌써 몇 시간째 꿈쩍도 못해서 지루했다며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고, 에드는 눈이 어딘가 슬퍼 보이긴 했지만 성격이 서글서글했다. 다비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체 이들 중에 누가 범인일까, 생각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한 명이 나타났다. 발소리도 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돌아다니는 남자, 나이는 스무 살도 안 된 것 같은 깡마른 체격에 뾰족한 얼굴을 가진 라스라는 그 남자는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지만 줄곧 다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를 발견한 순간, 다비는 본능적으로 그가 납치범일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휴게소 안 작은 화장실과 얼어 붙은 휴게소 바깥의 주차장에서 다비를 포함한 다섯 명은 서로를 의심하며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인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대화와 추측이 이어지고, 어떻게든 아이를 구하는 동시에 총으로 무장한 범인으로부터 무사히 달아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다비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자신과 아이의 목숨을 걸고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인다. 과연 차에 갇힌 아이는 누구일까? 범인은 한 명일까? 누가, 왜 아이를 짐승처럼 납치했을까? 뜻밖의 결탁과 협상, 놀라운 반전이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하는 짜릿한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테일러 아담스(Taylor Adams)는 명망 있는 ‘Edmund G. Yarwood 상’을 수상하며 이스턴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했다. 2008년에 단편 영화 And I Feel Fine에 이어 시애틀 영화제에 상영된 영화를 만들었다. 현재 워싱턴에서 작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설 『Eyeshot』, 『Our Last Night』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올랐다.

제목 : LOST AND WANTED

가제 : 물리학자 앞에 유령이 나타났다

저자 : Nell Freudenberger

출판사: Curtisbrown (UK), Knopf (US & Canada)

발행일: 2019년 봄

분량 : -

장르 : 서스펜스소설



*** 프랑스, 폴란드 등에 계약된 소설 『THE NEWLYWEDS』 작가의 신작, 우정과 사랑, 인간의 마음을 물리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참신한 소설**

대학 졸업 후 물리학자로 성공한 주인공에게, 죽은 친구가 ‘유령’이 되어 나타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뺏속까지 과학자이고 귀신이나 유령,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누구보다 조목조목 과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죽은 친구가 희미한 모습으로, 자꾸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 이메일로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이 소설에서, 오랫동안 고의로, 혹은 자의로 잊고 지냈던 기억들과 믿기 힘든 사건들 사이에서 당황하던 주인공은 그 동안 학문적으로 절대 깨닫지 못했던 가장 깊은 우주의 신비를 배우고, 이해하게 된다.

MIT 물리학 교수로, 일곱 아들 짝의 엄마로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헬렌에게 찰리의 전화가 걸려온 건 어느 수요일 오전 11시였다. 학술지에 실릴 논문들을 검토하던 중이었지만 휴대전화 화면에 ‘찰리’라는 이름이 뜬 순간 헬렌은 다른 생각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너무도 가까운 사이였지마나 지난 1년 넘게 서로 얼굴은커녕 전화통화조차 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이 떠오르면서 반가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을 뿐이다. 하지만 서둘러 받아든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전화는 끊겼다. 헬렌이 얼른 다시 걸었지만 찰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알팍한 자존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헬렌은 다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 먹었다. 그런데 다음 날 걸려온 찰리의 남편, 테렌스의 전화는 헬렌을 충격에 빠뜨렸다. 찰리가 화요일 저녁에 저 세상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분명 어제 전화가 왔었다는 헬렌의 말에, 테렌스도 놀란 기색이었다. 찰리의 물건 중에 유독 전화기만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서, 딸아이와 함께 온 집안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럼 헬렌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찰리의 전화기를 훔쳐간 사람일까? 왜 굳이 최근 통화목록에도 없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을까?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지만, 알아낼 방법은 없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뜻밖에도 한 달이 더 지난 뒤에, 헬렌의 아들 짝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찰리와 헬렌이 처음 만난 때는 하버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날이었다. 서먹한 학생들끼리 조금이라도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배들은 ‘거짓말 하나 섞어서 자기소개하기’ 시간을 준비했다. 한 명씩 소개를 마치면 그 중에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 맞춰보는 일종의 게임이었다. 늘씬한 몸매에 아름다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스무 명 남짓한 방안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찰리와 고등학교 내내 책에 얼굴만 파묻고 지냈던 존재감 없는 괴짜 공부벌레 헬렌은 누가 봐도, 서로가 생각해도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날 두 사람은 단짝이 됐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헬렌은 물리학자로 성공하기 위해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 연구활동에 논문을 쓰느라 여념이 없었고, 연구 성과 하나가 저명한 학술지에 실리는데다 블랙홀에 관한 저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미국 전역은 물론 유럽, 아시아 등에서 보내오는 러브콜에 응하느라 찰리와 연락할 틈이 없었다. 그 사이, 잘 나가는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찰리는 고졸 서퍼 테렌스와 결혼을 하고 딸 시모나를 낳고, 오래 전부터 이유 없이 자꾸만 안 좋던 건강이 루프스 때문이었다는 진단을 받는다.

비슷한 시기에 헬렌도 임신을 했다. 헬렌은 일에 집중하고 싶었고, 일에서 성공하면서 충실한 남편까지 기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혼모의 삶을 택한다. 그리고 모두의 반대 속에 혼자 아들 잭을 낳아 기르느라 또 다시 혼자 바쁜 시간을 보냈다. 찰리는 가끔 보내오는 이메일로 안부를 전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아이가 꼬물꼬물 기어 다니던 때 이후로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각자의 삶을 살았다.

찰리가 마지막에는 뇌염 때문에 화학치료까지 받느라 고생했다는 테렌스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헬렌은 찰리와 처음 만난 날부터 오직 둘만이 아는 소소하고 큰 20대의 사건들을 하나씩 꺼내본다. 후회와 죄책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연거푸 머릿속을 채우던 어느 날, 찰리가 죽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들 잭이 헬렌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집 서재에서 찰리를 봤다는 것이다! 잭은 어리지만 상상력이 지나치게 큰 편도 아니었고, 말을 지어서 하는 아이도 아니었다. 하지만 잭이 묘사하는 찰리의 모습은, 직접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어린 아들이 전한 찰리의 ‘유령’ 이야기에, 헬렌은 물리학자의 안경을 일단 벗고 현상 자체에 주목해보기로 한다.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 태어나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이끄는 낯선 세계를 믿어보기로 한 헬렌은 줄곧 자신을 사로잡은 우주의 법칙과 지금 자신과 잭에게 벌어지는 희한한 현상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

사랑과 우정, 과학이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주제를 물리학과 형이상학으로 한데 묶어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지만 그 마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 우정의 복잡한 특성을 진솔하게 탐구한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넬 프로이덴버거(Nell Freudenberger)는 소설 The Dissident와 단편 모음집 Lucky Girls로 PEN/말라무드 상(PEN/Malamud Award)과 수 카프만 상(Sue Kaufman Prize)을 수상한 소설가다. 「그레타」 선정 ‘뛰어난 젊은 미국 소설가’, 「뉴요커」 선정 ‘40세 이하 20인’으로도 선정됐다.

제목 : ESCAPE AND EVASION

가제 : 탈출과 도피

저자 : Christopher Wakling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8년 5월 3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범죄/스릴러소설



★ “비트코인 시대의 관계망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던 소설. 분노 서린 복수와 끈끈한 우정, 영원히 우리를 끌어 당기는 집을 폭넓게 그린 이야기” – 저널리스트 토니 파슨스(Tony Parsoons)

★ “흡입력과 가슴 따뜻한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고, 여기에 코미디와 개성 넘치는 인물들의 목소리, 영리한 반전이 가미된 소설이다.” – 작가 제인 해리스(Jane Harris)

대형 투자은행에 다니는 착실한 은행가가 13억 4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자신이 일하는 은행에서 훔친다. 가끔 뉴스를 장식하는 이런 류의 사건에서 용의자는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잠적하는데, 그는 전혀 다른 곳에 이 거액을 몽땅 사용한다.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낯선 이들, 세계 곳곳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전부 나눠주는, 현대판 로빈 후드가 된 것이다. 원하는 목표를 모두 이룬 그는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을 떠나 유유히 도망 길에 오른다. 1990년대에 군인으로 살았던 그에게 탈출은 뼈에 새겨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 못지 않게 뺏속까지 군인인 군 시절의 동료가 방금 엄청난 돈을 훔친 바로 그 은행의 보안 책임자고, 이 사태를 파악한 순간 누구보다 집요하게 추적을 시작할 것이다. 그가 나서기 전에, 최대한 멀리 달아나야 한다.

조셉 애쉬크로프트가 처음부터 간 큰 ‘도둑’이었던 건 아니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주의에 폭 절어서 살던 인물이지만 무모하게 남의 돈을 가져다가 쓸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가장 소중히 여기며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뒤, 그는 오로지 성공만을 쫓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온 지난 날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성하기로 마음 먹었다. 아직도 너무나 사랑하지만 남처럼 멀어져 버린 아내 나오미, 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두 아이 라라와 잭은 그의 진심과 달리 성공에 눈먼 자신에게 등을 돌려버렸고, 악몽 같은 과거의 기억들은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군 시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반갑지 않은 결과를 남긴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그가 금융권에서 마침내 당당히 성공한 이후에도 줄기차게 그를 괴롭혔다. 이 모든 것이 지긋지긋해진 조셉은 다 털어버리고 그토록 집착했던 삶에서 벗어나기로 한 것이다. 13억 4천만 달러는 엄청난 금액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상위 0.001 퍼센트의 사람들은 단 1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의 돈을 조셉이 일하는 에어딘 클로어 투자은행 같은 곳에 맡긴다. 이들이 돈을 더 불릴 생각으로 투자하는 이 돈은, 한 해 세계 생산량 전체의 5 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런데 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의 25 퍼센트, 4분의 1이 쓰는 돈을 모두 합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조셉은 언젠가부터 이런 통계와

수치를 줄곧 생각해왔다. 업무상 필요해서 알게 된 이런 정보들은, 이상하게 그를 쫓아다녔다. 왜 이런 부당한 상황이 신경 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에게도 여러 번 그런 생각을 드러냈고, 이미 조셉의 허무맹랑한 소리에 질린 아내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눈 앞에서 귀를 틀어막곤 했다. 아마 그 때, 아내는 조셉이 지껄이던 그 생각을 이렇게까지 크게 키워서 실행에 옮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리라.

이야기는 조셉의 독백과 생각만으로 계속해서 진행된다. 한밤 중에 자신의 은행 사무실 책상에 평소처럼 야근을 하는 것처럼 앉아서 마우스 몇 번 클릭하는 것으로 거대한 도둑질을 마친 조셉은 회사를 조용히 빠져나간다. 독자는 그가 보고 듣는 것,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만 전해 들으며 그를 따라가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사실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편집적이고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조셉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분명 누군가 조셉을 쫓아오고 있는데, 경찰도 아니고 조셉이 가장 우려하던 과거 군 동료이자 은행 보안 책임자 랭카스터도 아니라면 대체 누구일까? 회사를 나선 직후에는 런던 주변을 배회하고 도시에 계속 머물러 있던 오래 전 멀어진 가족들이 따로 사는 시 외곽의 집 근처, 숲 속에 숨어 들어간다. 그는 군 작전을 떠올리며 철저히 신분을 감추고 완벽한 도주 경로를 택하지만, 이상하게도 신문이건 뉴스건 1조가 넘는 돈이 털렸다는 소식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은행이 투자상품의 가치를 염려해서 일부러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위장했다고 보기에는 금액 손실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조셉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조셉이 돈을 보낸 곳들, 지구촌 곳곳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을 돕는 단체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눈먼 돈, 그것도 아주 거액의 돈을 받았으니 지역 뉴스에라도 다루어질 법한데, 아무리 검색창을 뒤져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소식은 하나도 없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조셉의 자신만만했던 태도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가 바로 곁에서 따라 온다는 확신으로 밀실 공포증에 가까운 공포로 변질되고, 억지로 눌러온 과거의 기억들이 통제 불능 상태로 솟구치면서 현재의 기억과 뒤엉킨다. 소중한 것을 다 잃고,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한 남자가 무모하리만치 대범한 행동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입지를 되찾으려 발버둥치는 과정은 코맥 맥카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와 셰릴 스트라이드의 『와일드』를 떠올리게 한다.

<저자 소개>

크리스토파 워클링(Christopher Wakling)은 옥스포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변호사로 일하다 소설가, 여행 작가로 활동해왔다. 저서로는 『The Devil's Mask』, 『On Cape』, 『Three Points』, 『The Undertow』 등이 있다.

제목 : MATCHMAKING FOR BEGINNERS

가제 : 초보 커플매니저를 위한 지침서

저자 : Maddie Dawson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6월 1일

분량 : 370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 사랑, 서로 사랑하는 로맨틱한 사랑,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여성의 우정에 담긴 사랑 등 사랑에 관한 책. 온기와 유머, 서스펜스와 함께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이야기” – 베스트셀러 『Sisters One, Two, Three』의 작가 낸시 스타
- * “소설 속 인물을 이 책의 인물들만큼 사랑했던 적이 있는지 떠오르지 않을 정도다. 페이지마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소설” – 베스트셀러 『Life and Other Near-Death Experiences』의 작가 카밀 파간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잘생긴 남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심지어 남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착한 마음씨까지 드러냈다면, 호감을 갖지 않을 여성이 있을까? 서른 살 생일이 코 앞에 다가온 마니 맥그로우는 현모양처가 가장 큰 꿈인 자신 앞에 나타난 이 남자에게 단단히 빠졌다. 남편과 알콩달콩 사이 좋게 살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조용한 교외에 아담한 집을 장만해서 가끔 여행이나 다니며 살고 싶은 마니의 생각을 다 읽기라도 한 것처럼, 노아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정말 사랑하고 어린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낀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언젠가 영화 각본가로 성공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면서, 겨울에는 스노우보드 타는 것이 취미라고 했다. 더 가까워지자, 그는 마니에게 센스 있는 선물을 하고 직접 노래를 작곡해서 기타를 치며 불러주기도 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남편감을 찾았다는 생각에, 마니는 잔뜩 부푼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휴가에 부모님을 뵈러 같이 가자는 그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다. 이미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로 발전한 터라, 자연스러운 수순이기도 했다. 하지만 손님들로 북적이던 노아의 집안에 들어선지 10분도 채 지나기 전에, 마니의 미래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확 바뀌고 말았다.

고급스럽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온 집안을 빼곡하게 채운 노아의 집에서, 매년 이 집의 안주인이자 노아의 어머니인 웬디가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말 행사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 부유한 사람들만 사는 고급 주택가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웬디의 빌라에는 허세와 가식으로 톡톡 뭉친 손님들이 가득 모여서 억지로 미소 짓고 깔깔대고 있었다. 단 한 사람, 그들을 역겨운 눈으로 쳐다보는 노인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웬디의 이모 블릭스였다. 이 지역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 동안 자선기금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내놓았는지 동네방네 알리기 위해 열린 이런 파티에 가족이라 어쩔 수 없이 참석했지만, 블릭스는 웬디 뿐만 아니라 집안 대

대로 내려온 이 허례허식이 정말 끔찍이도 싫었다. 손님들은 평온한 남부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떠난 이 집의 아들, 노아가 데려온다는 새 신부를 다 같이 기다렸고, 마침내 젊은 커플이 등장하자 모두의 시선이 이제 웬디의 며느리가 될 뉴페이스에게로 와락 쏠렸다. 저 멀리에서 두 사람을 응시하던 블릭스는, 누구도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웬디의 파티에 참석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모든 규칙에서 전부 벗어난 마니가 첫 눈에 마음에 들었다. 캐시미어 스웨터를 걸치지도 않았고, 귀걸이나 목걸이에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요란한 장식도 없고, 머리는 방금 미용실에서 나온 것처럼 완벽하게 다듬어지지도 않았다. 그저 스키니진에 혈령한 셔츠, 눈썹 바로 위에서 끓어지는 뺨 앞머리, ‘레어비트(치즈 토스트)’ 좀 먹어보라는 웬디의 권유에 ‘전 토끼 같은 거 못 먹어요’라며 엉뚱한 대답을 예의 바르게 내놓는 마니는 이 공간에서 가식이라곤 전혀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기회를 노려 마니와 대화를 시작한 블릭스는 역시 첫 인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다. 마니는 처음 본 사람이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든, 서로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을 집어낼 줄 아는 능력이 있다고 블릭스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커플 제조기! 바로 블릭스가 평생 해온 일이 바로 그 일이었다. 뺨속에 암 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 자신의 뒤를 이어 ‘짜짓기 사업’을 맡을 사람이 절실했던 블릭스에게 마니는 그야말로 하늘이 보내준 귀인이었다.

하지만 마니는 남도 아닌 자신의 조카 손주인 노아가 가식적인 집안에서 자란 버릇 없는 부잣집 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블릭스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물론 가족들을 만나본 뒤에 여러모로 실망한 점들이 많았지만, 결혼까지 깨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다. 자꾸만 머릿속을 파고드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을 감행하려던 마니는 불과 2주 만에, 본색을 완전히 드러낸 노아와 끝을 내고 만다. 꿈꿨던 미래가 모두 무너졌다는 실망감과 스스로에 대한 한심함에 무너진 마니에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처음 만날 때부터 노아의 가족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신을 따듯하게 맞아준 블릭스 이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브루클린의 큰 집을 이제 그 집 며느리도 아닌 마니에게 물려준 것이다! 웬디, 노아를 비롯한 가족들만큼이 마니도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었다.

블릭스는 마니에게 자신의 평생 사업, ‘짜깅 맞추기’ 프로젝트를 함께 물려준다. 실연 당한 사람들, 친구 하나 사귀기 힘든 괴짜들, 인간관계에 좌절한 사람들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잘 어울리는 짝을 찾아주는 일을 마니에게 도맡아 해보라고 한 것이다. 사업 한 번 해본 적 없고, 보조 교사로 일해본 경력이 전부인 마니가 과연 블릭스의 예상대로, 뛰어난 커플 제조기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덜컥 받아들이고도 자신이 없었던 마니는, 블릭스가 남겨둔 가르침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간다. 사랑은 제대로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것,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교훈과 함께, 노아에게서 받은 노아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 간다. 코믹한 이야기와 감동, 지혜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유쾌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매디 도슨(Maddie Dawson)은 영어교사, 백화점 직원, 웨이트리스, 유모, 심전도 측정기 기술자 등 다양한 경력을 쌓고 베스트셀러 소설가가 되었다. 저서로는 『The Survivor's Guide to Family Happiness』, 『The Opposite of Maybe』, 『The Stuff That Never Happened』 등이 있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THE ENSEMBLE

가제 : 앙상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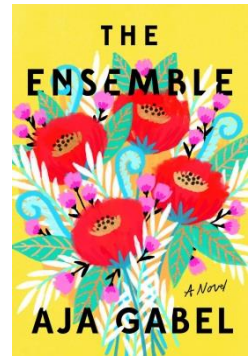
저자 : Aja Gabel

출판사: Riverhead

발행일: 2018년 5월 15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Buzzfeed, New York Magazine, The Rumpus, The Millions, Huffington Post & Electric Literature 등 수많은 매체 선정 2018년 최고 기대작! 독일, 네덜란드 판권 계약

* 출간 전부터 Washington Post, The Oprah Magazine, Marie Claire, Poets & Writers 리뷰 예약

* NPR “Weekend Edition” 출간 직후 방송 예약

*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하모니를 이루지만 늘 함께 공유한 과거로 연결되어 있는 네 명의 젊은 음악가들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강력한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셀레스테 응

좋아하는 일,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열정을 다하는 이야기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도 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감동과 신선한 자극을 준다. 현악 4중주단으로 한 팀이 된 네 명의 젊은이들의 사랑과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생생하게 그린 이 소설 역시 순수한 야망이 주는 감동과 함께 음악이라는 소재가 선사하는 예술적 아름다움, 팀 플레이의 가치를 전한다. 첼리스트로 활동했던 작가가 쓴 이야기답게 음악에 대한 묘사와 연주자들 간의 관계, 음악계의 현실이 현실적으로 그려진 특별한 소설이다.

졸업 연주회를 앞두고, 반 네스 현악 4중주단은 마침 다른 행사로 학교를 찾아온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포도리오에게 몇 시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 솔리스트로 전 세계를 누비며 연주회를 열고 있는 잘 나가는 음악가답게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네 사람의 연주를 지켜봤다. 졸업 연주회는 그저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엄격히 점수를 매기는 평가의 시간이자 신인 음악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에이전트나 음악계 관계자들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반 네스 4중주단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뒤 캐나다에서 열리는 ‘에스터하지 경연’이 이들의 주된 목표였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힘겹게, 가까스로 이어온 음악 활동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팀의 리더인 자나도, 제2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브릿도, 가장 어리지만 재능은 누구보다 뛰어난 비올리스트 헨리도, 그리고 최연장자인 첼리스트 대니엘도 오랫동안 우승을 위해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러나 포도리오와의 짧은 만남은 이들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온다.

사실 포도리오 앞에서 연주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한 건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자나는 그
가 올해 에스터하지 경연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연주회나 대회가
임박하면 다른 사람의 공연은 절대 가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철칙을 깨고 자나가 졸업 연주회 이
틀 전에 열린 포도리오의 협연을 보러 간 것도 같은 목적 때문이었다. 졸업 연주회를 무사히 마
치고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자신의 호텔로 가는 길을 굳이 직접 안내해달라는 포도리오의 노
골적인 요구도 자나는 역시나 그 목적으로 받아들였다. 경연 우승, 오직 그것만이 어릴 때부터
가난한 형편에 꾸역꾸역 음악을 해온 지난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절실한 기회였다.

얼마 전까지 연인 관계였던 브릿과 대니엘은 갑작스러운 대니엘의 이별 통보로 짧게 끝이
나고 브릿은 쉽게 이별의 아픔을 추스르지 못한다. 나이도 어리고 별로 열심히 연습하는 것 같지
도 않은 헨리가 누가 봐도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 대니엘이 브릿과의 관계는
물론 술한 여성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다 정리한 이유는 바로 그 사실이었다. 철저히 노력파인 자
신이 나머지 팀원들, 특히 헨리의 기량에 맞추기 위해서는 수십 배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다는 사
실을 철저히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을 인지하는 것과 인정하는 건 너무나 다른 일이었다.
헨리 역시 첫 과외가 끝난 뒤 포도리오가 팀원들 몰래 내민 명함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다. 4중
주단으로 활동하는 대신 솔로로 나서보라고, 뉴욕으로 오면 얼마든지 길을 열어 주겠다는 포도리
오의 적극적인 섭외에 헨리는 아무 말 없이 명함을 받아 쥐기만 했지만 그 날 이후 머릿속에는
온통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진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느꼈던 처음
의 감정은 점점 흐려지고, 또 다른 가능성을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네 명의 하모니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 기계적인 조화가 아닌 몸도 마음도 모두 하나
가 될 때 비로소 생겨나는 진한 감동의 가치를 아는 네 사람은 음악가로서의 삶을 결정지를 중대
한 경연과 기회를 앞두고 각자 갈등의 기로에 선다. 소설은 이들이 풋풋한 젊은이들이던 시절부
터 중년이 되기까지 음악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가슴 아픈 이별과 결혼,
큰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예술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밀쳐내기도 하지만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과 비밀, 기억이 밑거름이 된 협주의 소중함을 깨닫는 여정을 아름답게 그려낸다. 음악
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음악을 잘 아는 사람에
게는 소설이라는 매체로 새로운 음악적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만한 이야기다.

<저자 소개>

아자 가벨(Aja Gabel)은 첼리스트로 활동하다가 작가로 전향했다. 웨슬리언 대학교, 버지니아 대학교
에서 공부하고 휴스턴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Kenyon Review」에 실린 에세이 "The
Sparrows in France"로 동 잡지로부터 '2015 미국 최고의 에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Atlantic Monthly」,
「Inprint」, Sewanee Writers' Conference, Literary Arts Oregon 등으로부터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Publicity status and praise for
THE ENSEMBLE
AJA GABEL

MAJOR NATIONAL MEDIA THIS WEEK: Aja's interview with Scott Simon for NPR Weekend Edition that will air this Saturday, 5/19. The [Wall Street Journal](#)'s review from this past weekend calls the novel "[a] terrifically entertaining review," and reviews in *O Magazine* and *Entertainment Weekly* are hitting stands this week. The book is also featured in the latest issues of *Southwest Magazine*, *Real Simple*, and *Marie Claire*. A reminder that *Buzzfeed* ran first serial (with some top notch original illustrations) a few days ago, too.

PRAISE PRAISE PRAISE: "A page-turner of a debut"—*Nylon* "Absolutely sublime"—*Refinery29* "A riveting look inside the world of classical musicians"—*Marie Claire* "A satisfying read."—*Real Simple* "Brilliant, groundbreaking...no other novel is quite like *The Ensemble*."—*BookPage*

THE WALL STREET JOURNAL

Home World U.S. Politics Economy Business Tech Markets Opinion **Life & Arts** Real Estate WSJ. Magazine

BOOKS | BOOKSHELF

Fiction Chronicle: Measure for Measure

Three novels about music as an escape, an ensemble endeavor and 'the sound of a life being fully lived.'



By Sam Sacks

May 11, 2018 6:10 p.m. ET

In her novel *“The Ensemble”* (Riverhead, 339 pages, \$26), Aja Gabel quotes Goethe’s definition of a string quartet as “four rational people conversing among themselves,” then follows with the indignant rebuttal of a violist named Henry, who argues that the whole point of chamber music is disorder and disputation. “He had fun in the chaos of four people,” Ms. Gabel writes; “the chaos was what made it feel like art, like beau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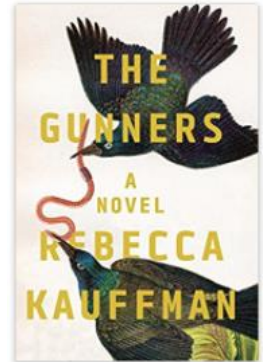
His attitude marks a shift from most novels about musicians—Frank Conroy’s *“Body and Soul,”* for instance, or Mann’s *“Doctor Faustus”*—which feature a solitary genius whose divine playing contrasts with the pig’s breakfast of his personal life. But in Ms. Gabel’s terrifically entertaining debut, the frictions of long-term friendships are woven into the “webbed, collaborative endeavor” of the quartet. Their music doesn’t transcend the mess of living; it testifies to it.

As such, Ms. Gabel has arranged her foursome to provide maximum confrontation. Henry is a happy-go-lucky prodigy with lucrative offers to strike out as a soloist. Jana, the first violinist, is brusque and unsentimental, imperiously determined to succeed. Brit, the second violinist, is the romantic of the group, acutely sensitive but also needy and subordinate. The cellist, Daniel, is a striver, dragging himself from poverty to Carnegie Hall through sheer technical proficiency. *“The Ensemble”* charts their fights and reconciliations over 16 years as they grow from budding tyros to seasoned professionals, yet their most pointed communication is always subverbal: “A slip of a bow tip could indicate ambivalence about the dynamic choice; and countless other movements were missives—a slight lean forward or back, a persistent attack at the [bow] frog, a certain brightness of tone, and when necessary, a furrowed brow, a frown, and a pause in playing.”

Commenting on the quartet’s early failures, a pompous elder statesman says that their problem wasn’t a dearth of talent so much as an excess of energy, “energy you all didn’t know how to *use* yet.” Something similar can be said for Ms. Gabel, who flings herself in this episodic novel into one crisis after another, rarely relaxing the rather harried tempo. But an overabundance of conflict is a promising imperfection, the sign of a writer with an appetite for drama and outsize characters. Daniel speaks to the novel’s wonderfully rough, unruly humanity when he realizes that “it wasn’t just music that made you bigger. People did. People gave you stories. People made you expand.” And he hints at what may be a better definition for a quartet than Goethe’s: Four intermittently rational people in a lover’s quarrel.

추가 업데이트

제목 : THE GUNNERS
가제 : 거너스 그룹
저자 : Rebecca Kauffman
출판사: Counterpoint
발행일: 2018년 3월 20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 「나일론(Nylon)」 「허핑턴 포스트」 「시카고 리뷰 오브 북스」 선정 2018년 가장 기대되는 소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기대작!
- * “여러 등장인물 모두가 소설이 끝날 때까지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는, 큰 만족감을 안겨줄 멋진 소설” - 「퍼블리셔스 위클리」

허름하고 가난한 동네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모여서 까불던 여섯 명의 친구들. 주인 없이 버려진 빈 집에 손전등을 켜고 모여 앉아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게임도 하고, 속상한 일들을 다 털어 놓던 이들은 아지트가 된 그 집의 옛 주인들의 이름으로 보이는 ‘거너스’를 모임의 공식 명칭으로 정했다. 모두 씩 행복할 수만은 없는 가정환경에서 힘들게 살던 터라 더더욱 친형제들처럼 가까워진 이 거너스 멤버들이 뿔뿔이 흩어진 건 한 명이 갑자기 모두를 외면하면서부터였다. 쉐리는 고등학교에 잘 다니던 열여섯 살의 어느 봄날부터 별안간 거너스의 모든 친구들을 모른 척 하기 시작했다. 학교 복도에서든 길에서든 마주치면 눈을 피하고, 불러도 절대 대답하지 않았다. 집을 찾아가도 쉐리 엄마는 아파서 나올 수 없다며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왜 갑자기 쉐리가 돌변했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고민에 빠진 마이키와 앨리스, 샘, 린, 지미 다섯 명의 거너스 멤버들은 무수한 추측과 가설을 내놓았지만 어느 것 하나 딱 들어 맞는 것이 없었다. 서로를 향한 근거 없는 원망과 의심은 탄탄한 성벽 같던 이들의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각자 제 갈 길을 가면서 거너스는 자연스럽게 해체됐다.

30대 초에 들려온 친구의 자살 소식을 계기로 다시 모인 친구들이 서로 속내를 털어놓고 용서하며 치유되는 과정을 그린 아름다운 소설

쉐리를 제외한 다섯 명은 가끔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릴 적 추억을 이야기했지만 사는 곳도, 사는 방법도 많이 달라져서 다시 한 자리에 모이고 싶다는 마음을 실현 시키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거너스가 다시 모이는 날도 예고 없이 찾아왔다. 쉐리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에 장례식에서 모두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샬리와 가장 먼저 친구가 된 사람은 마이키였다. 유치원 시절, 수줍음이 많아서 먼저 다른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버스에서 늘 혼자 앉아 있던 마이키의 옆자리에 곱슬곱슬한 빨간 머리에 초록색 머리띠를 한 샬리가 어느 날 조용히 앉으면서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이 시작됐다. 마이키는 엄마가 없고, 샬리는 아빠가 없어서 통하는 부분도 많았고 무엇보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편하다는 것이 좋았다. 초등학생이 되자마자 동네 아이들 넷과도 함께 놀면서 거너스가 형성되고, 샬리가 갑자기 모두를 모른 척 하고, 다들 뿔뿔이 흩어진 뒤에도 그 동네에 계속 남은 사람도 마이키와 샬리, 둘이었다. 마이키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제너럴 밀스 공장에 취직해서 회사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서른 살이 되도록 직장도, 집도 바꾼 적 없이 계속 똑같은 일상을 지냈다. 가끔 약국이나 슈퍼마켓, 길에서 샬리와 마주친 적은 있지만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눈이 마주쳤다 싶으면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다. 마이키는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 샬리와 다시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릴 수 없었지만 그런 샬리의 반응은 그 모든 소망을 다 무너뜨리곤 했다. 그러다 같은 회사 동료들 통해, 샬리의 시체가 마을과 멀지 않은 강에서 발견됐고 강 초입에서 차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자살로 추정된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마이키는 믿기지 않는 이 뉴스를 나머지 네 명의 거너스에게도 전했고, 모두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마이키는 늘 혼자서만 지내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세상 밖에서 무수한 경험을 쌓고 살아온 친구들과 달리 그 자리에 꿈쩍없이 머무른 자신이 너무 달라서 민망하고 창피한 마음을 동시에 느끼며 앨리스와 샘, 린, 지미를 기다린다.

샬리의 죽음으로 15년 만에 한 자리에 모인 친구들은 샬리를 또 다시 잃어버린 이 비극적인 사태를 서글퍼하며 밤새 술잔을 기울이고 그 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내놓는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샬리가 오래 전 돌변한 것이 자기 탓이라고 여겨왔다는, 뜻밖의 사실들이 등장하고 늘 붙어 지내면서도 알지 못했던 서로의 상황을 모두가 더 깊이 알게 된다. 서른 초반에 갑자기 찾아온 황반 변성이라는 병으로 곧 시력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태라 혼자 절망하던 마이키는 친구들이 밝힌 놀라운 비밀을 접하며 자신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돌아보고, 언제부터 쌓여 왔는지 모른 외로움과 비참함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낀다. 소설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라는, 보편적이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을 여섯 명의 인물을 통해 다각도로 들여다보면서 진실을 발견하고, 과거를 용서하는 이들의 과정을 통해 조금은 더 나은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저자 소개>

레베카 코프먼(Rebecca Kauffman)은 맨해튼 음악학교에서 클래식 바이올린을 공부한 뒤 뉴욕 대학교에서 문예창작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센터 포 픽션(Center for Fiction)’의 데뷔소설 상 후보에 오른 『Another Place You’ve Never Been』이 있다.

Praise for
THE GUNNERS
REBECCA KAUFFMAN

"*The Gunners* follows a group of friends from their close knit childhood in working class Buffalo, NY to their disparate mid thirties. Mikey, Alice, Lynn, Jimmy, and Sam are brought together again by the sudden suicide of fellow "Gunner," Sally who, as a teenager, abruptly abandoned the group with little explanation. After the funeral, the group, reunited for the first time in a decade, spend a drunken evening grieving, reminiscing, confiding, consoling, and most importantly, just being with one another, while trying to understand the mysterious motivations of Sally'. Sharp, bighearted, and rich with specific detail, the story ticks every box in a bildungsroman you could hope for leaving readers with that familiar warm and tight-throated nostalgia you feel when rediscovering a shoe box of old photos from high school. Highly readable and certainly a good companion for a Spring Break getaway."

—Katelyn O'brien, Square Books, Oxford MS

"There's a special glue that holds a group together. But sometimes that glue dissolves and releases individuals to melt away into their own worlds. Such was the glue of the Gunners and such was the outcome when one of the group of youngsters, now teenagers, suddenly, for no apparent reason, removed herself from their midst. But Mikey was left alone with a secret that would follow him into his later years. It was not something which should have been a secret, you understand, but a secret it was.

But he's not the only one keeping something to himself. When Sally commits suicide, the Gunners reunite but no-one knows if all the secrets she was carrying about their group will emerge. It's time to face the truth and reach for forgiveness. My heart went out to Mikey from page one. This stand-out novel is an engrossing story of friendship and the consequences of trying to hide from life, as well as a memorable offering from a very good writer." —Linda Bond, Auntie's Books, Spokane, WA

"*The Gunners* is a story about friendship, family and loss told from the perspective of a group of childhood best friends who reunite in their early 30s after one of their own commits suicide. The novel, which weaves the group's present-day reunion with moments from their childhood, paints a nuanced, beautiful and often funny portrait of each character that kept me absorbed until the final page. The novel never spells out the exact reasons for Sally's suicide—which I was glad for—but rather reveals the complex mix of pain and secrets that each person brings into a friendship. There are many books about childhood friends, but this one stands out for its honest, messy and surprising characters that feel refreshingly real." —Elissa Englund, Bank Square Books, Mystic CT

"I recommend you read every single thing Rebecca Kauffman writes—start with this beautiful novel, and start now." —Julie Buntin, author of *Marlena*

"Kauffman's prose is restrained in a way that causes it to actually vibrate in places, and her details are so richly observed they feel like gems, impossible things mined from deep under the earth. Funny, raw, and deeply elegant, *The Gunners* is ultimately a meditation on friendship, that least examined, most mysterious form of love, perhaps more sacred for its incompleteness, for the ways we can never fool ourselves completely into believing we truly know one another." —Rufi Thorpe, author of *Dear Fang, with Love* and *The Girls from Corona del Mar*

"*The Gunners* explores what it means to have people crawl into your heart and settle in for a lifetime. In this lovely, truthful novel of six people who have been friends since childhood, Rebecca Kauffman strips enduring love of all its usual romantic costumery, and shows us how it actually works." —Martha Woodroof, author of *Small Blessings*

"I inhaled *The Gunners* in a single sitting, because I couldn't stand to be away from it once I started it. Rebecca Kauffman's brilliantly rendered story of six childhood friends tells the hard truth about human love—what it seems to be from far away, and what it really is up close—boldly, with compassion and warmth and humor." —Kayla Rae Whitaker, author of *The Animators*

Publicity status for
THE GUNNERS
REBECCA KAUFFMAN

An incredible NYT's review of THE GUNNERS by Rebecca Kauffman, running in this Sunday's New York Times!

"... Kauffman has done something remarkable with 'The Gunners.'... She's made spending time with [her characters] not just tolerable but delightful. And she's achieved this not by manufacturing likability, but by so convincingly rendering the affection between them that you accept each character's foibles as readily as they do one another's... [T]here's so much generosity and spirit and humor shared by whatever characters are on the page at any given time that I was always happy to accompany them."—New York Times Book Review

The New York Times



FICTION

Childhood Friends — Once Inseparable, Now Far-Flung — Reunite for a Funeral

By Xhenet Aliu

May 11, 2018



Rebecca Kauffman Rachel Herr

The characters in Rebecca Kauffman's "The Gunners" exhibit the range of personalities that you'd expect from a random sampling of Middle Americans: nice people, abrasive people, the churchy, the alcoholic, the educated, the not. You'd probably know which of them you'd prefer to sit with at a high school reunion. And yet Kauffman has done something remarkable with "The Gunners," the now grown group of childhood friends who adopted the moniker from the mailbox of the abandoned home they used as an after-school squat: She's made spending time with them not just tolerable, but delightful. And she's achieved this not by manufacturing likability, but by so convincingly rendering the affection between them that you accept each character's foibles as readily as they do one another's.

It's a funeral that reunites this group: Sally, who suddenly and without explanation broke off contact near the end of high school, has committed suicide by throwing herself from a bridge. Now 30 years old, most of the friends have long since scattered from their working-class hometown in upstate New York, save for Mikey, the closest the novel has to a protagonist.

Mikey, who's losing his sight to early-onset macular degeneration, lives a mostly solitary life — while he craves connection, he's better suited to distance than intimacy. When he was a boy, his nearest experience to parental tenderness was the gentle touch of a nurse conducting an eye exam; as an adult, he's so consumed with building a sensory inventory of his external world that he fails to develop human relationships. And yet he's kind and rock-steady, deriving his joy by quietly documenting the Gunners: Alice, Mikey's opposite in most ways, a brash lesbian marina owner who says what she feels, and she feels a lot; Lynn, a gifted pianist with a severed finger and quite a few A.A. chips; Sam, an Everyman who was reborn at the Christian camp where he worked after high school; and Jimmy, a math whiz who struck investment gold in Los Angeles but keeps a lake house near their hometown.

As latchkey kids in an often harsh environment, the Gunners found that the most effective defense against pain was the denial of it. Thus, secrets were inevitably an essential ingredient of their dynamic, and Sally — already the most vulnerable, the sensitive child of an alcoholic mother — somehow became the keeper of them all. Each is convinced that theirs was the burden that drove Sally to leave the group and eventually take her own life. When they begin to reveal what they kept hidden as children, they find that their confessions are not met with forgiveness, discovering instead that forgiveness is unnecessary.

Kauffman, though admirably direct in her language, doesn't always juggle all the moving parts gracefully; Jimmy, bearer of the most significant revelation in the novel, enters late and exits quickly, making his appearance feel almost like a cameo. Lynn's and Sam's roles feel front-loaded, their presences diminished in the latter half of the novel. And using Mikey, the most emotionally deficient of the friends, as the primary lens can be frustrating because his narrative hurries through the most fraught moments in the story. As a reader I understand that he wants to flee, yet I can't help wanting to stay.

Still, there's so much generosity and spirit and humor shared by whatever characters are on the page at any given time that I was always happy to accompany them. And while not all the mysteries are resolved — least of all Sally's — that's really the point: Friends, especially childhood friends, don't need to fully understand one another in order to accept one another.

Xhenet Aliu is the author of the novel "Brass."

Follow New York Times Books on Facebook and Twitter (@nytimesbooks), sign up for our newsletter or our literary calendar. And listen to us on the Book Review podcast.

The Gunners has been chosen as a **Barnes & Noble Discover New Writers** selection for 2018!

Kirkus Review: "Kauffman has created vivid and compelling characters struggling with what is in some ways the most universal dilemma: how to grow up. Mikey especially is mature and thoughtful but not at all precious; and the boisterous, hilarious Alice is charming despite her best efforts to behave otherwise. In fluid prose, Kauffman lays bare the lessons of youth and truth. A layered and loving bildungsroman of friendship."

Publishers Weekly (Starred

Review): "Perceptive, funny, and endearing...Reminiscent of The Big Chill and St. Elmo's Fire,...provides readers with an entire cast of characters who will feel like old friends."

Selected as one of The Huffington Post's **60 Books We Can't Wait To Read in 2018**, Chicago Review of Books **Most Anticipated Fiction of 2018**, Southern Living's **Best New Books Coming Out Spring 2018**, From The Texas Book Festival Lit Director Desk: **2018 Reads**, Ink and Fable's **Top 5 Most Anticipated Reads of 2018**, Book Riot's **101 Books Coming Out In 2018 That You Should Mark Down Now!**, NYLON's 2018 Preview: **50 Books We Can't Wait to Read in 2018!**, PureWow's **20 Books We Can't Wait to Read in 2018**, Heard Tell's **5 Books I'm Excited About in Early 2018**, The Real Deal's **35 Books We Can't Wait to Get Our Hands On In 2018**, Books are my Favourite's **Books I'm Waiting For**, Book Bub's **30 Most Anticipated Book Club Books for 2018**, The Reader's Room's **Most Anticipated 2018 Books**, and Reading Women Podcast's **Most Anticipated New Releases of 2018**.

NON-FICTION

제목 : FALLOUT

가제 : 핵의 과거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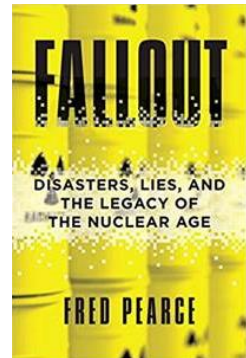
저자 : Fred Pearce

출판사: Beacon Press

발행일: 2018년 5월 22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과학



- * “핵 기술이 인류에 남긴 커다란 심리학적, 정치적 영향을 통찰력 있게 해부한 책. 저자는 핵이 에너지원이자 방어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크게 빛나갔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해야 할 때가 아닌지 과감히 질문한다.” – 「북리스트」
- * “저자의 예리한 정치적 시각과 냉철한 과학적 사고가 결합되어 공포와 속임수라는 해로운 유산 등 수많은 근거를 들며 이제 핵 시대를 마감해야 할 때임을 알리는 책” – 「The America Syndrome」의 저자, 벤티 하트만

핵에 관한 불안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지만, 핵 에너지의 실질적인 위험성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핵 외에는 다른 에너지원이 정말 없는지, 좀 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없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없다. 저명한 과학자이자, 다양한 저술 활동으로 날카로운 정치적 식견을 인정 받아온 저자는 핵 에너지와 핵무기를 둘러싼 이 혼란스러운 정보와 불안감 속에서, 핵이 우리에게 남긴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깔끔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다. 핵 폭탄부터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터진 사고들, 핵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지난 70년간 인류와 핵 기술의 복잡한 관계를 상세히 파헤친 결과가 이 책에 모두 담겨 있다.

저자가 먼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사실 한 가지는, 미국이 핵폭탄에 매료된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기권 핵실험이 100여 차례 실시된 네바다 주의 핵 실험장과 그리 멀지 않은 라스베가스에서는 1950년대에 ‘미스 핵폭탄’을 선발해서 왕관을 씌워줄 정도였다. 그러나 이 무수한 실험으로 주변 지역의 무고한 시민들 사이에 암 발생률이 급등했고, 북태평양 비키니 환초에서 실시된 세계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고방사선에 피폭된 일본인 어부들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운명을 맞이했다. 그럼에도 미국 원자력위원회는 이들을 스파이로 결론 짓고, 먼저 나서서 치료하려는 의사들의 시도까지 저지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어 저자는 독자들을 소련의 폐쇄된 도시로 데려간다.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플루토늄이 정제되고 핵폭탄 시험이 실시되던 이 도시들에 남은 환경과 인류의 막대한 피해 흔적은 이제야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저자는 그 유명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외에도 러시아 우랄 산맥의 사틀리코보라는 작은 마을부터 영국 윈드스케일(현 셀라필드)에서 벌어진 사고 등 잘 알

려지지 않은 핵 사고를 상세히 전하고, 핵 에너지가 군사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더 광범위한 민간 분야에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극비로 숨겨지는 어두운 그늘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여전히 전하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저자가 마지막으로 짚어보는 것은 핵 기술이 남긴 해로운 유산이다. 핵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딜레마, 핵 시대에 거대한 방사능 시설을 해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관한 고민들, 세계 곳곳에서 축적되는 플루토늄을 향한 이중적인 사고, 그리고 핵 기술이 낳은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산물은 무엇인지도 자세히 살펴본다.

인간의 정치적인 성향과 인간 특유의 약점, 두려움, 오만함이 강력한 기술과 만나면서 발생한 복잡한 역사를 냉정한 시각으로 분석한 의미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인류세 여행

1부. 세상을 파괴한 것

1장. 히로시마: 보이지 않는 상처

2장. 임계질량: 모드 위원회와 핵 정원 (이하 생략, 6장까지)

2부. 냉전과 고방사능 입자

7장. 마야크: “시간에 쫓겨서” 우랄 저편에서

8장. 메트리노: 사모바르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 곳

9장. 록키 플랫: 깊은 구덩이 속의 플루토늄 (이하 생략, 12장까지)

3부. 평화를 위한 원자

13장. 스리마일 섬: 발전소가 돌아가지 않게 하는 법

14장. 체르노빌: 아주 ‘멋진’ 재앙

15장. 체르노빌: 보드카, 그리고 낙진 (이하 생략, 20장까지)

4부. 평화

21장. 사이즈웰: 핵 세탁소

22장. 셀라필드: 환상 열석과 핵의 유산 (이하 생략, 25장까지)

결론. 나가사키의 평화

<저자 소개>

프레드 피어스(Fred Pearce)는 20년 넘게 전 세계 67개국에서 발생한 환경, 과학, 개발 이슈를 취재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뉴 사이언티스트」 매거진의 환경 고문으로도 활동해 왔으며, 「가디언」, 「메일 온 선데이」 등에도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해 왔다. 2011년 영국 과학협회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The New Wild』, 『When the Rivers Run Dry』, 『With Speed and Violence』 등 여러 편의 저서가 16개 언어로 번역되고 많은 상을 수상했다.

제목: THE SCIENTIFIC SUBLIME

가제: 숭고한 과학: 리처드 파인만부터 스티븐 핑커까지 우리를 매료시킨
대중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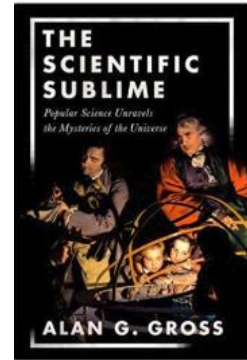
저자: Alan Gross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8년 7월 2일

분량: 328 페이지

장르: 대중과학/인문



- * “숭고함이라는 수사적인 개념을 압도적인 설득력의 의미로 확장시켜, 저자가 선별한 여러 작가들의 예리한 설명과 이론이 남긴 영향을 분석한 책 이를 통해 저자가 제시한 ‘과학적 숭고함’이라는 중요한 새 용어는 앞으로 어느 시대든 과학적인 저술의 평가에 활용될 것이다” – 메릴랜드 대학교, 진 파네스톡(Jeanne Fahnestock)
- * “저명한 물리학자, 생물학자들이 생명의 기원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 속 이야기와 맞먹는 방대한 서사를 제시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대 과학이 자연에서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관심 있는 독자라면 꼭 읽어야 할 책” – 요크 대학교, 버나드 V. 라이트먼(Bernard V. Lightman)

스티븐 호킹이라는 과학자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저서 『시간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리’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렵고 머리 아프다고 고개를 저을 때, 호킹은 학창시절 모두가 피하고만 싶었던 난해하고 어려운 물리학의 개념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 있는 이야기로 풀어놓았다. 이 책이 과학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보다 더 많이 판매된 것은 스티븐 호킹이 아주 위대한 과학자라서가 아니라 글을 쓰는 능력, 문장과 이야기로 독자를 매료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저자는 리처드 도킨스를 비롯해 이와 같은 대중 과학서가 큰 인기를 끌고 과학과 거리가 먼 일반 독자들의 큰 애정을 받게 된 이유에 호기심을 갖고 분석한 결과, 오직 과학에 심취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자연과 우주, 인간의 관계를 절묘한 이야기와 글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이 공통적인 특성임을 깨달았다고 전한다. 존 밀튼이 시력을 잃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네트를 읽을 때, 그랜드 캐년의 장대한 풍경을 볼 때, $E=mc^2$ 라는 짧은 공식 하나가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에 남긴 영향을 떠올릴 때 느끼는 느낌, ‘숭고함’을 과학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그러한 큰 호응을 얻은 대중 과학서들에 담겨 있다. 저자는 리처드 파인만, 스티븐 와인버그, 리사 랜들, 레이첼 카슨, 스티븐 제이 굴드 등 물리학과 생물학 분야의 대표적인 과학자이자 저술가들의 책을 각 장마다 예로 들면서 인류 모두의 근본적인 의문을 어떻게 글로 표현했는지 살펴본다. 우주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을까? 생명은? 언어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글을 쓴 이 과학자이자

저술가들은 18세기에 문학적인 숭고함을 자연과 과학에 접목시키려 했던 조지프 에디슨, 에드먼드 버크, 임마누엘 칸트, 애덤 스미스 등의 노력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이는 대중이 의존하던 종교의 기능을 과학이 대체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저자는 생명과 자연의 숭고함을 과학적으로 풀어낸 노력이 종교에 타격을 주고, 기존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문제인 삶의 의미, 좋은 삶의 의미에 답을 찾으려는 또 다른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다.

겉이 날 정도로 놀랍고 경이로운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숭고함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문학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바탕이 되고 과학의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일어난 변화와 의미를 다양한 사례와 저서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목차>

1장. 과학도 숭고하다

1부. 물리학자

2장. 리처드 파인만: 모두가 공감하는 숭고함

3장. 스티븐 와인버그: 추측된 숭고함

4장. 리사 랜들: 기술적 숭고함 (이하 생략, 6장까지)

2부. 생물학자

7장. 레이첼 카슨: 윤리적 숭고함

8장. 스티븐 제이 굴드의 저서: 균형 잡힌 숭고함

9장. 스티븐 제이 굴드의 에세이: 숭고함의 경험

10장. 스티븐 핑커: 박학다식함에서 나오는 숭고함 (이하 생략, 12장까지)

3부. 더 나아가, 신을 향해

13장. 더 나아가, 신을 향해

<저자 소개>

앨런 그로스(Alan Gross)는 트윈시티 미네소타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학 교수이자 국립 커뮤니케이션협회 소속 학자로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The Rhetoric of Science』와 공동 저자로 참여한 『Communicating Science』, 『The Scientific Literature』 등이 있다.

제목 : THE ADDICTION SPECTRUM

가제 : 중독의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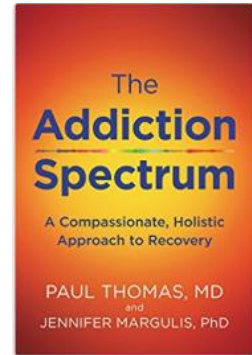
저자 : Paul Thomas & Jennifer Margulis

출판사: HarperOne

발행일: 2018년 9월 4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건강



*** 알코올, 아편 유사제, 대마초 등 현대인의 가장 큰 건강 위기가 된 크고 작은 중독의 실태와 저자가 직접 개발한 단계별 중독 극복 프로그램**

유명 연예인이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이나, 할리우드의 인기 배우가 마약 중독으로 죽었다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접한다. 그러나 ‘중독’은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다. 미국에서는 2016년에 약물 과용으로 숨진 사람이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보다 많았고, 뉴욕 시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2천만 명 이상이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됐다는 통계도 있다. 작년 한 해에만 12세 이상 미국 인구 중 1250만 명이 처방 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오용했다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마약성 진통제 과용으로 인한 매일 115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로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이처럼 중독은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 진정제, 강력한 진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왜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중독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급증했을까?

소아과 의사이자 통합의학 의사로, 중독 치료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온 저자는 과거 어느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현대인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결핍 혹은 불균형, 특히 비타민 D의 결핍과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을 핵심 원인으로 꼽는다. 약물 등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자체의 강력한 영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방식과 형편 없는 건강 상태가 중독을 더 부추기고 중독 증상을 악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곧 과거보다 중독 문제에서 헤어나오기가 더 힘들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효과가 검증된 기능의학을 바탕으로 직접 개발한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알코올, 대마초, 메탐페타민, 스크린 등 중독 물질의 종류별로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극복 방안을 함께 제공한다.

사람마다 중독된 물질도 다르고, 중독 수준이나 몸의 상태도 제각기 다른 만큼 개개인에게 맞는 방법이 필요하고 저자는 이를 통합의학의 접근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책 1부에서는 각자 꼭 맞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중독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중독에 관한 잘못된 정보와 상업적인 목적에 눈먼 의료계와 식품업계, 제약업계가 환자와 소비자의 중독을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기 위해 활용한 교활한 방식도 낱알이 분석한다. 이어 책 2부에서는 치료법이 가장 확실하게 ‘먹힐’ 수 있는 건강한 몸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중독은 신체는 물론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이 끈질긴 악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작정 치료법부터 따르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의 변화와 영양 개선, 보충제 섭취와 같은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저자가 오랫동안 몸 담아온 통합 의학적인 중독 해결 방식의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여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몸과 마음, 정신의 협응 작용과 치유의 본질적인 특성을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독은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며, 마음을 굳게 먹고 끊지 못한다고 절대 비난할 일이 아니다. 중독은 질병이며,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환자마다 증상이고, 중, 저로 나뉘는 하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중독을 처음부터 다시 이해하고, 현재 처해 있는 상태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는 방법을 소개한 유익한 건강서다.

<목차>

1부. 전염병이 된 중독

머리말

1장. 중독 스펙트럼에서 당신의 위치는?

2장. 중독에 관한 오해와 진실

3장. 의사와 제약회사, 식품업계, 우리의 스트레스가 우리를 중독자로 만든 과정

2부. 상세 분석

4장. 우리 삶을 파괴하는 마약성 진통제로부터 벗어나는 법

5장. 약습의 타파: 메탐페타민, 기타 자극제 중독 극복하기

6장. 알코올이 뇌에 주는 영향

7장. 중독의 시작, 궁금해서 한 번 해보는 것? 대마초의 수수께끼

8장. 스크린과 도파민, 기타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

3부. 중독 해결법

9장. 미로 같은 의학적 치료에서 길을 찾아라

10장. 폴 박사의 13가지 회복 계획

11장. 자신의 노력을 받아들이는 것

<저자 소개>

폴 토머스(Paul Thomas)는 다트머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소아과학회 소속으로 통합의학, 전인적 의학, 중독의학 치료 분야에서 활동했다. 2004년 「America by Ladies' Home Journal」 선정 최고의 주치의로 선정, 의사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Castle Connolly>에서 2006년, 2009년, 2012년, 2014년에 최우수 소아과 의사로 선정됐다.

제니퍼 마굴리스(Jennifer Margulis)는 10년 넘게 아동 건강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취재해온 과학 저널리스트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스미소니언 매거진」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THE HISTORY OF ANIMALS: A PHILOSOPHY

가제 : 철학으로 바라본 동물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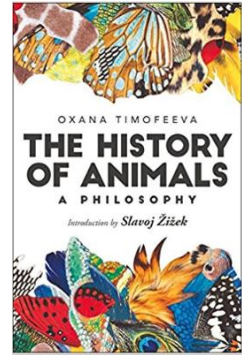
저자 : Oxana Timofeeva

출판사: Bloomsbury Academic

발행일: 2018년 4월 19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철학



★ 이 시대의 가장 저명한 인문학자,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의 서문 수록!

★ “동물을 부당하게 다룬 철학을 단순히 꾸짖는 대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들뢰즈까지 다양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뒤집어 동물의 철학적 위엄을 회복시키는 방식을 제시한다. 우리 인간은 ‘혁신적인 동물’의 일원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하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책” – 치체스터 대학교 비평이론 교수, 벤자민 노이스(Benjamin Noys)

★ “동물 문제”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흡입력 있게 해석한 결과” – 미국 라살 대학교 철학이론 부교수, 앤소니 폴 스미스(Anthony Paul Smith)

자연의 구성원들을 각각 분리해서 계층을 나누는 것은 철학의 전통적인 인식 패턴이 된 지 오래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동물이 식물보다 낮고, 사람이 동물보다 낮고, 남자가 여자보다 낮고, 자유 시민이 노예보다 낮다는 식의 저울질과 계층화가 뿌리를 내렸다. 이러한 구분은 하위로 분류된 존재가 부족하고 나쁘다기보다는 상위에 속한 존재가 더욱 뛰어나고 우수하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심지어 동물의 ‘편’에 서서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동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조차도, 인간이 동물을 돕고, 존중하고, 지원하고, 알아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미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고 따라서 지배계층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과연 그럴까?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어디서부터, 왜 시작됐을까?

저자는 이 책에서, 철학의 역사에서 동물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만든 동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 높은 벽을 반드시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인간이 애써 외면하고 분리시키려고 노력해온 동물적 특성을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낸다. 인간이 지닌 동물성을 수용하자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을 따르자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하나의 특성을 없는 사실처럼 거부하려는 형이상학과 기독교 문화의 잘못된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판이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인간이 동물을 더 미개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은 오히려 동물을 향한 질투와 시기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특히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고상하고 뛰어난 존재로 여긴 철학자들은 동물이 아닌 이상 절대로 알 수 없는 동물들의 경험을 넘겨 줌과 마치 자신의 지성이나 의식으로 다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이성적인 사고, 언어, 죽음을 인지하는 능력 등이 철학에서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이는 윤리적, 존재론적인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벽을 쌓는 시초가 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인간의 동물성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생각하기도 싫은 일로 강하게 거부하는 흐름으로 자연스레 이어졌고, 개개인이 지닌 동물성은 억눌러야 하는 것, 무시하고 모른 척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저자는 이와 같이 인간의 사고체계에서 동물이 어떤 존재로 그려졌는지 추적하고, 인간이 만든 인간의 이미지는 제멋대로 의인화되거나 아예 별개의 생명체로 여겨지거나 물건처럼 애정을 쏟는 대상으로, 혹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그려진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동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한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머리말 - 슬라보예 지젝

1. 오이디푸스와 말
2. 법이 생기기 전에
3. 정신 이상자
4. 불안, 초조, 불행
5. 직업을 찾을 수 없는 동물성
6. 물고기의 변증법
7. 존재의 양치기
8. 불상한 인생

<저자 소개>

옥사나 티모피바(Oxana Timofeeva)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러피안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 THE CONNECTOR' WAY

가제 : SNS로 충분하십니까?: 대면관계에서 찾는 비즈니스 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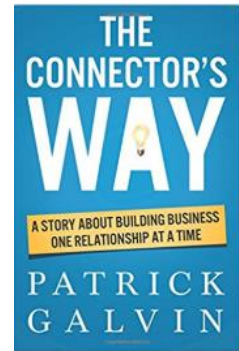
저자 : Patrick Galvin

출판사: Joseph Rudolph Publishers

발행일: 2016년 3월 4일

분량 : 104 페이지

장르 : 경영, 리더십



★ “삶을 바꿔줄 ‘커다란 한 방’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해답이 되는 경우는 드물며 소소한 것들이 연이어 모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책” - 『Go for No! 』의 저자 리처드 펜튼

★ “디지털 시대에도 사업적인 거래는 관계가 좌우한다. 이 책은 그저 관계를 맺는 것 이상을 생각하게 하는 열정에 불을 지핀다.” - HUB 인터네셔널 노스웨스트 영업부, 가스 해밀튼

디지털 시대에 새로 등장한 기술들은 여러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수월하게, 전에 없던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소셜 네트워크도 그 중 하나로, 원래 알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각종 인터넷 플랫폼이 없었다면 평생 알 기회가 없었을 무수한 사람들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툴이 되어 주었다. 자연스레 비즈니스에서도 분야와 상관없이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영업과 광고의 성패도 관계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가르게 되었다.

그러나 직접 발로 뛰고 일대일로 얼굴을 마주보거나 최소한 전화통화로 음성이라도 들으면서 사업 계획이나 상품의 가치를 설명하는 일은 정말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제 영원히 사라지게 될까? 저자는 사업 성공의 핵심은 ‘올바른’ 관계 형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진실을 교육과 워크숍, 저술 활동을 통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왔다.

신기술은 개개인이 이미 구축한 대인관계를 ‘강화’시켜줄 수 있지만, 사람이 사람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형성되는 관계를 절대 대체하지 못하며 비즈니스 역시 바로 그 점에 주목해야 급변하는 시대에 탄탄히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이 책은 로버트 헨슨이라는 가상의 사업가를 주인공으로 삼아 저자가 제시하는 이 원칙을 습득하고 하향세에 접어든 회사에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을 한 편의 소설처럼 들려준다. 로버트가 재정적으로 크게 곤란한 상황에 처한 보험 중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 명의 멘토와 그 외 주변 인물들은 뚜렷한 의도 혹은 목적만 중시하는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맺은 관계들이 비효율적인 시간낭비가 아니라, 개개인과 사업을 가장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큰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실제 상황을 통해 보여준다.

주인공 로버트 헨슨은 할아버지가 처음 설립한 보험회사를 몇 년 전, 부친이 일찍 돌아가신

뒤에 넘겨 받았다. 90여 년의 전통을 가진 회사는 한 때 업계 최고의 자리에도 오르며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지만, 로버트가 경영권을 얻은 뒤부터 수익은 점점 줄고 매달 직원들 월급도 제때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휘청대는 지경에 이르렀다. 로버트는 위태로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유명한 강좌며 세미나에 열심히 참석하고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머리를 쥐어짜지만, 빛은 나날이 늘어만 간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었다. 지인의 회사 1층에 운영되는 카페에서 나이 지긋한 웨이트리스가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다가, 어떤 사람이 와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능력을 포착한 것이다.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정말 '대접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가치를 인지한 로버트는 두 명의 멘토를 통해 개인적인 삶과 사업 운영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밟아 나간다. 특히 커리어 성장과 사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비즈니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곱 가지 대인관계 원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드라마 한 편을 보듯 짝막짝막한 각 장을 읽는 동안 저자의 중요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경영 지침서다.

<목차>

서문 / 머리말

1. 생일
2. 멘토
3. 나를 깨우는 것
4. 듣기
5. 충격
6. 샘솟는 아이디어
7. 변화겠다는 다짐
8. 먼저 줄 때 얻는 것
9. 멤버십의 이점
10. 가치의 전달

(이하 생략, 총 20장까지 구성)

<저자 소개>

패트릭 갤빈(Patrick Galvin)은 브랜드 전략 컨설팅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업체 The Galvanizing Group을 공동창립하고 대표를 맡고 있다.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사교성을 살려 실생활과 온라인에서 사람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강연과 워크숍을 통해 소개해 왔다.

제목 : LIFE SKILLS: STUFF YOU SHOULD REALLY KNOW BY NOW

가제 : 알면 손발이 편한 생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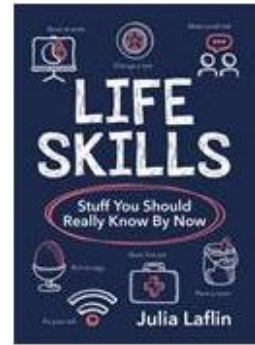
저자 : Julia Laflin

출판사: Summersdale

발행일: 2018년 5월 10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취미



*** 옷에 단추 다는 법, 계란 삶는 법, 월급 올려달라고 잘 얘기하는 법까지, 살면서 꼭 알아야 할 요긴한 팁과 기술을 삽화와 함께 소개한 지침서**

병 뚜껑이 도저히 열리지 않을 때, 밝은 색 옷에 커피나 고추장 같은 진한 얼룩이 묻었을 때, 난생 처음 직접 전구를 갈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검색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꺼내 든다.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고 팁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매번 물어보거나 검색하기도 귀찮고, 너무 기본적인 것조차 모를 때는 ‘왜 나는 이런 것도 하나 모르지’ 같은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 감정적인 한탄을 넘어서 남들은 다 아는 생활 기술을 몰라서 쓸데없이 돈과 시간을 버리거나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경우도 있다. 저자는 이 책에 누구나 살면서 최소 한 번은 직접 해볼 일이 생기고 알아두면 요긴한 생활 기술을 유형별로 모아서 제시한다. 필요한 용품을 직접 만드는 방법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틈틈이 읽고 익혀두면 절대 손해 볼 일 없는 다양한 정보가 간단한 일러스트와 함께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부엌’ 편에서는 샐러드 드레싱, 스프 등 똑딱 만들 수 있고 자주 해 먹게 되는 음식 레시피와 식품 종류별 보관법, 관찮은 와인 고르는 법, 맥주와 샴페인 병 따는 법과 더불어 부엌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소개된다. 차 끓이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커피 만드는 법, 생선 손질법도 배울 수 있다. ‘옷’ 편에서는 어떤 얼룩이 묻어도 말끔히 없애는 신기한 팁과 바늘과 실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바느질 방법이 종류별로 상세한 그림과 함께 나와 있다. 커다란 침대시트 개는 법, 손빨래 잘 하는 요령, 다림질법과 옷 종류별로 개는 법도 포함되어 있다. ‘청소’ 편에는 집안 구석구석에 수시로 생기는 얼룩과 묵은 때를 없애는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다. 진공청소기로 제대로 청소하는 요령과 침대 정리하는 법, 창문, 오븐, 가죽 소재 신발을 말끔히 닦고 청소하는 팁을 얻을 수 있다. ‘집안일’ 편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민망할 만큼 알아두기만 하면 금방 해치울 수 있는 소소한 생활 팁이 다양하게 소개된다. 벽에 그림 걸기, 벽에 박혀 있는 못을 제거하고 구멍 메우기, 전구 교체하기, 욕실이나 주방 타일 청소하는 방법부터 자꾸 막히는 하수구 뚫기, 물이 똑똑 씹 없이 떨어지는 수도꼭지 고치기 같은 약간 난이도 있는 수리 기술까지 배울 수 있다. 이어 ‘탈 것’ 편에서는 자동차자 자전거 등 흔히 이용하는 이동수단에서 발생하기 쉬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고 사고를 피하는 요령이

소개된다. 손 세차 순서와 요령, 타이어 교체하는 법, 눈길 운전 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다. ‘신나는 아웃도어 활동’에는 평상시에 활용할 일은 별로 없지만 전기기구나 편의 시설이 없는 곳으로 여행을 갔을 때 필요한 팁이 정리되어 있다.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진 현대인들 대다수가 생각조차 해본 일 없는 일들, 가령 나뭇가지를 모아서 직접 불을 피우는 법이나 강통으로 물을 끓이고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스토브 만드는 법, 아무 것도 없는 자연 속에서 비와 바람을 막아줄 임시 천막 세우는 법, 물을 음용수로 정화하는 법 등 신기하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팁들이 가득하다.

심심할 때 순서 상관없이 읽어두면 필요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쉽고 재미 있게 소개된 책이다.

<목차>

머리말

부엌

옷

청소

집안일

탈 것

신나는 아웃도어 활동

응급상황

생활 관리와 에티켓

대화 잘 하는 기술

대인관계 기술

맺음말

<저자 소개>

줄리아 라플린(Julia Laflin)은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행사, 놀이동산, 건강 관련 어플리케이션 등에 들어가는 마케팅 콘텐츠를 개발해 왔다. 저서로는 『Silver – A Practical Guide to Collecting Silverware』와 『The New Covent Garden Soup Company's Soup & Beyond』가 있다.